

인니 강진·쓰나미 사망자 1200명 넘었다

한 마을 2000명 사망 보도도
희생자 수천명 이를 뜻
전력·통신 두절 구조 난항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강진과 뒤이은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1일 현재 12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건물들이 엇가락처럼 휨 술라웨시섬 팔루 시내 8층짜리 로아로아 호텔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강진과 뒤이은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1천2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타임스는 1일 "사망자 숫자가 전날 1200명 이상으로 늘었다"며 "진앙과 가까운 동갈라 지역 등의 피해가 집계되면 사망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도 지진 탓에 흘러내린 진흙이 팔루 지역 마을을 휩쓸면서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팔루의 인구는 35만명에 달한다.

자카르타포스트는 "해변에서 10km 떨어진 팔루 지역 남쪽 페토보 구를 이루(泥流·물처럼 흐르는 진흙)가 강타했다"며 "이곳에서만 2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주민 유수프 하스민은 "파도처럼 출렁이는 진흙을 헤치고 가족과 함께 겨우 탈출했다"며 "하지만 다른 친척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팔루 서쪽의 다른 구는 지난 침하로 수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이번 사태로 인한 사망자 규모가 수천명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D)은 중앙술라

웨시주 팔루와 동갈라 지역 등을 덮친 규모 7.5의 지진과 뒤따른 쓰나미로 지난달 29일까지 420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망자 수는 30일까지 하루 사이에 832명으로 배증했다고 재난당국은 전했다. 다만, 재난당국은 이후 추가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재난당국은 여러 지역에서 사망자 보고가 접수되고 있어 앞으로 피해 규모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쓰나미가 닥칠 때 팔루 인근 해변에서

축제를 준비하던 수백명의 행방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그간 통신이 두절된 동갈라 지역의 피해 소식이 들어오면 사망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갈라는 팔루보다 진앙에 더 가까우며 3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난당국은 병력 등을 투입해 수색과 구조에 나서고 있다. 지진으로 무너진 팔루 시내 8층짜리 로아로아 호텔에서도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당국은 무너진 이 호텔 내에 현재 50~60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호텔에는 강진 발생 후 연락 두절된 한국인 한 명이 묵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진 발생 당시 그가 이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재난당국은 팔루 시내 4층짜리 쇼핑몰에서도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팔루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강진과 쓰나미로 전력과 통신 시스템이 두절되고 도로도 상당 부분 파괴되면서 구조작업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51> 덕종

덕종(德宗, 742-805)은 당나라 9대 황제로 이름은 이괄이다. 양세법을 도입해 안사의 난 이후 재정을 재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나 변진의 반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환관을 중용해 왕조가 붕괴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대종의 장남으로 모친은 예진왕후 심씨다. 764년 태자로 책립되었다. 779년 5월 대종이 사망하자 황제로 즉위했다. 780년 연호를 건중으로 바꾸었다. 강력한 최우보를 재상으로 기용해 개혁에 나섰다. 최우보는 약 1년동안 800여 명의 관리를 뽑는 등 인재 채용에 심혈을 기울였다. 안사의 난 이후 군을 장악한 대장군 광자로부터 병권을 회수했다. 그를 상부(尙父)로 추앙하되 부원수직을 해직해 실질적으로 군사업무에서 배제하였다. 이에 각 지

계승하기를 청하였다. 덕종은 이를 거절했다. 치정진의 절도사 이정기 지위를 아들 이납이 계승하는 것도 불허했다. 이에 전열, 이유악은 관망중이던 산남 절도사 양승을 끌어들여 조정에 대해 변진전쟁이 시작되었다. 782년에는 회서의 이희열이 정주를 점령하고 낙양을 공격했다. 재정이 심해져 대신들이 한달 봉록을 삭감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783년 8월 경원병변(溧源兵變)이 일어났다. 이희열의 양주 포위 소식에 놀란 조정이 경원진에 지원 명령을 내렸는데, 푸대접을 받은 병사들이 절도사 요령언을 감금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덕종은 장안에서 현재의 섬서현 검현인 봉천으로 도망갔다. 유주절도사 출신 주차가 대진황제로 즉위하고 연호를 응천으로 정했다. 784년 육지의 건의에 따라 봉천에서 스스로 잘

환관 중용 당 왕조 붕괴 단초 제공

방에 할거한 절도사들이 크게 동요하였으며 이후 변진의 난으로 이어졌다. 재상 유안과 양염을 처형한 것이 초기의 치세를 어렵게 만들었다. 유안은 재정의 책임을 맡아 강남의 양곡을 장안에 공급해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재정 확충에도 공을 세웠다. 대종이 그를 "짐의 소하"라고 칭찬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양염의 모함을 받아 780년 사천성 충주에서 사사되었다. 양염을 재상으로 삼아 조용조 제도를 폐지하고 양세법(兩稅法)을 도입했다. 일년에 두 차례 하세(夏稅)와 추세(秋稅)를 징수했다. 먼저 재정소요를 산정한 후 세금을 거두는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을 확립했다. 이는 당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재정개혁으로 이후 역대 왕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었다. 양세법의 시행을 통해 "모든 권력이 비로소 조정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양염 역시 노기의 음모에 말려 781년 애주사마로 좌천돼 귀주에서 목을 매 죽었다.

변진(藩鎮)과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허북 3진인 성덕진, 위박진, 치정진이 경계의 대상이었다. 위박진의 절도사 전승사가 죽자 아들 전열이 이를 승계했다. 781년 성덕진 절도사 이보신이 죽자 아들 이유악이 지위를

못을 사과하는 죄(罪己詔)를 발표했다. 천하의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자기반성문이다. 대사를 실시해 왕무준, 전열 등이 조정에 복귀했다. 장군 이성이 분전해 주차를 물리치고 장안을 회복해 5월 장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변진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삭번정책(削藩政策)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결국 당 말까지 변진 할거 상황은 계속되었다.

환관의 권력 농단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즉위초기에는 환관을 경계했지만 대신들을 불신해 환관에게 군대를 감독하는 감군의 권한을 주었다. 특히 장안과 황궁을 경호하는 금군의 지휘권을 환관이 장악했다. 환관 두문장과 왕희상이 좌상병마사, 우상병마사로 취임했다. 대신에 대한 불신이 심해 794년 재상 육지를 파면했을 뿐 아니라 처형하려고까지 했다.

말년은 후사 문제로 고심했다. 장남 이승을 태자로 책립했는데 태자비가 난잡한 생활을 영위한 고모 고국공주의 여식 소씨였다. 이에 조카인 서양에 마음이 기울어 태자 교체 문제를 고심했다. 그러나 이필이 "폐하의 자손들이 천하를 호령하려면 반드시 적통이 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황제의 뜻을 꺾었다. 805년 우여곡절 끝에 왕숙문 등의 도움으로 태자가 순종으로 즉위했다.

中 1585개 품목 수입품 관세 또 인하

美 보호주의 맞서... 평균 12.2%→8.8%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서 1585개 품목의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공식화했다.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방직, 석재, 유리, 철강, 전자설비 등 1천585개 품목의 수입품 평균 관세율을 10.5%에서 7.8%로 낮춘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기계의 경우 12.2%에서 8.8%로, 섬유와 건설자재는 11.5%에서 8.4%로 각각 인하된다. 종이 및 기타 상품은 6.6%에서 5.4%로 낮아진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19일 개최된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관세인하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올해 들

어 인하된 중국 관세를 모두 합치면 소비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은 약 600억위안(약 9조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폭탄에 '동등한 강도'의 반격을 지속하는 한편 중국 전체 수입품의 19%에 달하는 수입품 관세를 낮춤으로써 무역전쟁에서 '우군' 확보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또 관세인하를 통해 미국의 대(對)중 관세 인상으로 오른 소비자 물가와 기업의 원가 상승을 상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올해 여러 차례 관세율 인하로 중국 전체 평균 관세율이 9.8%에서 7.5%로 낮아졌고, 평균 하락 폭은 23%에 달한다"면서 "관세율 인하는 대외 무역 균형 발전과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캐나다 나프타 개정 협상 극적 타결

멕시코와 3자 무역협정 틀 유지... 車관세 상당 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이 마감시킨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북미 3개국의 새 무역협정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으로 명명, 1994년 발효된 나프타라는 이름이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밤 공동성명을 내 나프타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멕시코와 먼저 나프타 개정안에 예비 합의하고 캐나다의 동참을 촉구해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오늘 캐나다와 미국은 멕시코와 함께 새롭고 현

대화된 21세기의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USMCA는 우리의 노동자, 농부, 목장주, 기업가들에게 더 자유로운 시장, 더 공정한 무역, 우리 지역의 튼튼한 경제 성장을 낳을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협상대표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프릴랜드 장관은 "새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의 가까운 경제적 유대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프타를 대체하는 이날 합의는 기존 협정의 재협상 또는 파기를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법비적 사건"이라고 불렀던 그는 평가했다. 공화당 소속인 오린 헤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프타를 현대화하는 합의에 도달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